

無自欺-精神開關에 관한 研究

朴昇植

目次

I. 序論	1. 大巡思想에서의 마음
II. 大巡思想의 目的	2. 無自欺의 意義와 實行
III. 마음(精神)의 理解	V. 精神開關의 意義
1. 마음(정신)의 理論	1. 開關의 概念
2. 儒家의 心性論	2. 精神開關의 意義
IV. 無自欺의 意義와 實行	VI. 結論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목적 중에서 無自欺와 精神開關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無自欺-精神開關,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關이다. 이러한 목적은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로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無自欺란 字意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참마음(本眞)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항상 참마음을 갖고 無自欺를 실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精神開關이 필요하다. 無自欺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精神開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無自欺와 精神開關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無自欺와 精神開關은 대순사상의 목적 중에서 첫째 목적이다. 그리하여 無自欺와 精神開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無自欺와 精神開闢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정신)을 고찰하고, 無自欺와 精神開闢의 의의와 실행에 관해서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大巡思想의 目的

목적이란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이다. 조직의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은 조직이나 단체의 존재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의 조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적은 모든 조직에 필요하며 필수불가결한 속성을 갖고 있다.¹⁾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조직인데, 그 조직에는 공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직의 목적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활동내용을 정해주기도 한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대순진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로서, 無自欺-精神開闢,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이다. 無自欺는 精神開闢에 의해 가능하고, 地上神仙의 實現은 人間改造에 의해 가능하고, 地上天國의 建設은 世界開闢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목적을 쌍으로 묶은 것은 전자는 결과를 의미하고, 후자는 전자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無自欺는 정신을 새롭게 갖는 정신개혁을 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심(邪心)을 완전히 버리는 정신의 획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無自欺를 행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地上神仙을 實現하려면 현실의 인간을 개조해야만 한다. 지상신선이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상적 인간상을 뜻한다. 신선이란 신과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 가정하고 있다.²⁾ 인간은 신과 같은 수준 이상

1) 吳錫泓, 組織理論(서울: 博英社, 1983), p.103.

2)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術院, 1996),

의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신과 같은 고도의 인격을 완성하고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지상신선이다.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신선관념(神仙觀念)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성(性)은 마음이 밝혀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³⁾ 하였다.

한편 지상신선이란 대순사상에서는 道通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의 도는 天道, 地道, 人道, 神道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통이란 이러한 모든 도가 막힘이 없이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인간이 수도를 하여 자연과 같은 본성을 회복하여 덕을 실행하는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것도 도통이라 할 수 있다. 도는 天에서 유래하며 본래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자각하고 확충시켜 나가고 실행해야만 한다. 도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道之覺),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며, 이를 널리 펴야(布德)하는데, 이러한 실행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 도통이다. 인간이 도통을 하게 되면 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하게 행하게 된다.⁴⁾ 도통을 하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과도 통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천지인 삼계의 도인 天道, 地道, 人道는 물론, 신과도 합일(神道)을 이루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地上天國의 實現은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이다. 지상천국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유토피아와 같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상정한 이상사회는 실현된 적이 없는 현실 초월적 상태를 의미한다.

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 75

4) 도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 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參照.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⁵⁾ 본래 이상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망하는 공간과 시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희망과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가 來世를 준비하고 사후세계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비해서, 대순사상에서는 현실세계를 이상향으로 만들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제까지의 세계를 선천세계라 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후천세계라 한다. 후천세계는 선경, 또는 진경이라고도 하는데, 지상천국을 의미한다.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이행하는 대공사가 개벽이고 천지개벽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향이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은 다른 종교의 내세관(來世觀)인 극락이나 천당과 유사하지만, 지상천국은 극락이나 천당과는 다른 독특한 내세관이다. 극락이나 천당은 인간이 사후세계(死後世界)에서 영생을 희구한 내세관이지만, 지상천국은 인간이 생존하는 현실세계의 이상화를 뜻한다.

지상천국은 후천세계로서 우주와 인간세계가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인간의 모든 번뇌와 원한이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과 각종 재난과 재앙이 없는 사회라 한다. 후천세계에서는 선천세계에서 불행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낮아져 참된 평등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개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류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선천세계는 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개벽이 이루어지기 전인 선천세계는 수화(水火)상극으로 자연 재해가 심하고, 지운(地運)이 통일되지 않아 토양이 척박하며, 인간과 신명들은 원한에 쌓여 있어 진멸 상태에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다. 참혹해진 선천세계를 완전히 변혁시켜 새로운 세상인 후천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개벽이라 한다. 개벽은 인간 정신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인 우주 자체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5)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 : 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 청아출판사, 1991), pp. 263-277

를 정신개혁과 세계개혁이라 하는데, 개혁은 상생원리를 따르게 하는 대작업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상극원리의 지배를 받는데, 후천세계는 상생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세계를 상생의 새로운 세계로 건설하는 데에는 인간의 정신을 개혁하는 작업과, 동시에 천지인(天地人)을 새로운 질서로 만드는 세계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삼계공사라 한다. 삼계란 天地人을 뜻하는데, 삼계공사는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는 것이다.⁶⁾ 개혁은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과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천지공사에 의해 열려진다. 선천세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멸망해 가는 세계를 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지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천지공사란 천지간의 큰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세계와 신명계의 원한을 풀어 주고 천지도수를 바로잡는 공사이다. 천지도수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뜻하는데, 천지도수에 따라 만물과 인간은 존재하고, 신명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천세계는 천지도수가 어긋나서 우주와 인간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계개혁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Ⅲ. 마음(精神)의 理解

1. 마음(정신)의 理論

마음과 정신이란 무엇인가? 마음과 정신은 동일한 개념인가, 관련이 없는 다른 개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다르게 표현하듯이, 영어에서도 마음은 *psyche · mind · heart · thought · will* 등으로 표현하고, 정신은 *mind · spirit · soul* 등으로 표현한다. 한편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인 심리학은 *psychology*라 하고, 정신분석학은 *psychoanalysis*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신분석학은 정신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심리와 정

6) 전경, 예시 5절, p. 312

신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한편 우리들도 마음과 정신과 관련된 용어로는 영혼, 심령, 의도, 의지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마음과 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마음·정신·영혼 등을 사용하는 데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과 정신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마음과 정신은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으며, 대순사상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완전히 바꾸는 정신개혁이라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도 사람의 행동을 주관함은 마음이라 하고,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라 하며,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등 마음이라 표현하면서도, 정신개혁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인간의 행동을 주관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면 정신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는 마음과 육체를 동일시하는 입장과 분리하여 보는 입장이 있다. 인간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서 중심이 되어 온 것은 유물론(唯物論)인데, 유물론에서는 心身同一說(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을 강조한다. 사람의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두뇌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한다.⁷⁾ 인간의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 두뇌작용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유물론은 마음도 물질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물질과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여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다르다는 정신-물질 이원론(物質二元論)이 있다. 인간의 활동을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정신)과 육체는 각각 다르게 존재하지만,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정신활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상태와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뿐이다. 육체적 활동은 公的이고 物理的 世界이지만, 정신의 세계는 私的 世

7)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인간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社, 1989), p. 262.

계의 일이다.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물리적 세계의 사건과 사물들은 외적이고, 정신의 제 작용은 내적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활동은 외부로 나타나 인지할 수 있지만, 정신 작용은 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 의지, 정서, 사고 등은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⁸⁾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분류하여 설명한 이후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논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리적 세계인 육체의 활동과 정신적 세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 상호관계란 표현은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정신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적 활동이 정신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Fromm은 인간 행동의 바탕에는 성격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어, 성격의 특성은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격의 기본적인 실체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체라 한다.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관계를 갖는 것은 사물을 획득하고 소화하는 동화(同化)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관계시키는 사회화의 두 과정이 있다. 두 과정 모두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 결정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다. 그리하여 성격은 동화와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유형이라 한다. 성격은 동물의 본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발달시켜 온 것에 의하여 각 개인은 비교적 일관된 행위를 한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성(人性)에 중점을 두고 인간이 무엇인가 규정하려고 하여 왔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고 있는 성질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중시하지 않고, 인간만의 고유성만을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으로 인식하였다. 이러

8)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p. 15.

한 논의를 人性論이라 한다.

인간만의 독특한 성질은 물리적 신체와 차원을 달리하는 마음(정신, 의식, 영혼)에서 시작된다. 儒家를 비롯한 고전 철학에서 인성은 마음의 본질·본성과 연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그리하여 인성론은 心性論으로 보기도 한다.⁹⁾

인간은 육체와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는 동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동물은 본능인 특정한 행동양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특정한 행동양식은 타고난 신경구조에 의해 결정된다.¹⁰⁾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본능에 의해 생존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만의 특성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아의식, 이성과 상상력 등을 갖고 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지능이 가장 발달한 진화된 존재로서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고력을 사용하고, 본능적으로 규정된 행동양식을 초월하고자 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사고능력과 지능을 통해서 본능적 행동을 규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고능력과 지능을 통해서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어도,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하여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적 욕구는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 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하위의 욕구에서 상위의 욕구로 상승된다고 한다.¹¹⁾ 인간은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상승된다고 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지향하는 최상의 욕구를 뜻하는데, 이는 인간이 도덕적 자율성을 즐기며, 자신의 행위 안에서 사상과 행동, 이성과 감정, 이지적인 것과 의욕적인 것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9) 임현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1), pp.20-21.

10) E From, *The Sane Society*(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55), 金炳翼 譯, 건전한 사회(서울 : 汎文社, 1984), p. 26.

11)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pp. 370-396

는 최상의 상태를 뜻한다.

한편 정신분석이론을 창시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마음을 原初我(id), 自我(ego)와 超自我(super ego)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초아는 본능적 충동, 특히 성적 본능을 강조한다. 원초아는 감각기관을 통해 받은 자극을 반사장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방출하려 하는데, 방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된다. 흥분하거나 긴장을 방출하는데에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한다. 원초아는 심적 에너지를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자아는 개인적 의식을 갖는 것으로 합리적·현실적이다. 원초아에 의한 충동적 욕구나 본능적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과 상벌(賞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아는 현실적으로 원초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원초아의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한다.

자아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가 의식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정신세계를 무의식이라 한다.¹²⁾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 마음, 느낌, 이념, 과거, 세계 등 정신적 내용은 의식이다. 인간에 있어서 의식은 매우 작은 일부분이고, 무의식은 인지할 수 없는 세계라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Jung에 의하면 인간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정신의 모든 것이 무의식이라 한다. 무의식이란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강박증, 의식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무엇에 이끌려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등이라 한다.

무의식이란 의식되었던 것이 억압된 것도 있고, 망각한 것들도 있으며,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해서 전혀 인식되지 못한 심리적 대응 등이라 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출생 이후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個人的 無意識이라고도 한다. 무의식은 태

12)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p. 41.

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의식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무의식은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를 集團的 無意識이라고 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평소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나 이중성향(二重性向)을 갖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의식적 행동이 될 수 있었으나 未分化된 상태로 남아 있는 원시적 심리, 잠재적 심리적 특성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무의식은 외계에 대상으로 투사되기도 하고, 자아가 처음 의식할 때에는 미숙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는 등 부정적 인상을 주어 자아의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자아는 정신의 의식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신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무의식을 하나씩 깨달아 가는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¹³⁾ 인간이 무의식을 깨달아 가는 의식화 과정은 자기실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실현은 일종의 개성화로서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이 개성화를 통해서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여 자기 자신, 또는 본연의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발달하는데, 초자아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다. 초자아는 양심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인격적 특성이 있다. 초자아는 경험에 의해서 발달하는데, 자아의 행동을 통제한다. 인간이 비윤리적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이는 초자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한다.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면 자아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 떳떳하지 못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긍지를 갖고자 하는데, 이는 초자아가 원초아의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고 자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한다.

2. 儒家의 心性論

심성론은 중국철학의 핵심적 주제가 되어 왔다. 중국의 심성론은 本體論

13) 상계서, p. 43.

이며 價値論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식론과 심리학적 성격도 갖고 있다. 심성론이란 사람의 본질과 본성, 사명과 가치, 인간의 존재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심성론은 인간의 본체 존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주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심성론은 心과 性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心이 性인가? 性의 본질과 내용은 무엇인가? 心의 본질과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는 데에서 중국 심성론은 발전하여 왔다.

중국 고대 심성론은 유가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도덕주체론(道德主體論), 과 이지론(理智論)·경험론 양대 계파가 있었는데 도덕주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도가에서 자연본체론(自然本體論)을, 불가에서는 절대초월론(絶大超越論)을 주창하여 초월의식을 강조하고 있다.¹⁴⁾ 그 후 송명리학(宋明理學)에 이르러 유가, 불가, 도가의 3가를 통합하여 자아 초월적인 형이상학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宋明理學이 중국 고대의 심성론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심성론은 人本思想, 理性主義思想, 主體思想, 整體思想의 성격을 갖고 있다.¹⁵⁾ 중국 심성론은 神本主義와는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이성(認知理性)과는 다른 실천이성(도덕 이성주의)을 강조하고 있고, 마음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 의해 자아완성과 자아실현 등을 추구하며, 인간과 자연계를 완전히 통합하려는 정체사상(整體思想)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한다고 한다. 여기서의 중국의 심성론 중 유가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의 심성론은 공자가 心性論을 창설하였고, 맹자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맹자의 性善說을 바탕으로 정자(程子)가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고, 주자(朱子)는 이들의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공자는 인간의 덕성과 지성, 性과 天道의 관계를 제기하였고,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이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사단(四端)과 사성설(四性說)을 제기하여 심성합일의 도덕주체론을

14) 蒙培元, 지음, 李尙鮮 옮김, 中國 心性論(서울 : 법인문화사, 1996).

15) 上揭書, pp.19-48.

정립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仁思想을 심성론의 이론적 기초로 삼아서, 仁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 규범은 인간의 내재적 본성이라 하였다. 맹자는 仁義禮智는 도덕적 원칙으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人性이라 한다. 인의예지는 마음에서 생기는데 선험적인 자율원칙으로 보고 있다. 맹자는 인간이 동정하는 마음(惻隱之心), 수치스런 마음(羞惡之心),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인 四端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한다. 동정심은 仁의 발단이고, 수치스런 마음은 義의 발단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발단이며, 분별심은 智의 발단이라 한다. 이러한 四端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정감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라 한다. 仁義禮智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감으로, 四端을 확충할 수 있다면 도덕 인성을 완성할 수 있고, 커다란 정신세계를 발휘할 수 있으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맹자는 모든 사람은 선하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단인 인의예지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충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훌륭한 인격자나 어진 통치자도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단과는 다른 개인적 욕구에만 집착하면, 잠재된 사단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정이천은 理를 性으로 보고, 理를 개인의 性과 동일시하고 있다. 理의 실천은 개인이 性을 발현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보편성과 주관적 특수성을 통합한다. 理를 실천하는 것이 性을 펴는 것이며, 性을 발현하는 것이 理와 합치하는 것이라 한다. 그는 性即理의 이론으로 “性은 좋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才다”¹⁶⁾라 하여 人性을 설명하고 있다. 性은 理로 인간은 좋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간이 不善한 것은 개인의 기질인 才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주자는 性인 體를 理, 情인 用을 氣로 보고 있다. 그는 “仁義禮智는 性이고 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情이다. 仁으로서 사랑하고, 義로서 미워하고 禮로서 사양하고, 智로서 아는 것은 心이다”라 하였다. 이는 맹자가 말한 仁義禮智의 4덕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性이며, 4端인 측은, 수오, 사양,

16) 柳仁熙, “程·朱의 人性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性論과 人性論(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pp.256-257.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주자는 心을 外物에 응하는 주체라 한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고 外物에 응하는 理를 性이라 하고, 心 자체는 氣라 한다. 心에는 理와 氣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性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자는 마음(心)은 “虛靈한 것이 本體”라 정의하여, 마음의 본 상태는 형체를 갖지 않으면서도(虛),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靈)고 한다. 마음을 “氣의 靈”이라 하여, 마음은 영명한 능력을 갖고 있어 깨닫는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에 의해 깨달은 것이 理라 한다. 마음은 外物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볼 수 없으나, 그 이치를 깨달을 수는 있다고 한다. 감각을 통해서 外物을 보거나 형체를 파악하지만, 이치를 아는 것은 마음에 의한다고 한다.

주자는 깨닫는 것은 氣의 靈이지만, 깨닫는 바는 마음의 理라 한다. 그리하여 “性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理이고, 마음은 理가 모여 있다”고 한다. 마음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의 理만이 아니라, 外物의 理도 깨달았다는 것이다. 외물의 理라 하더라도 그 理가 감각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靈覺能力에 의해서 체득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주자는 성즉리(性即理)에 의해 인간은 성선(性善)하지만, 性善說로는 악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차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서, 氣나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개념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氣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라 정리할 수 있다. 氣는 (1) 인간과 만물에 존재하는 구성요소이며, (2) 끊임없이 취산을 하며, (3) 理를 갖고 있으면서도 (4) 취산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理를 실현하는 자기 모순적 존재이며, (5) 만물간의 차이, 種들간의 차이, 종 내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¹⁷⁾ 이러한 氣에 타재해 있는 理가 性으로 氣質之性이다. 주자는 존재론적으로 미발(未發)의 마음의 본체를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는데, 이는 좋하다고 한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형기가 갖추어지면 理는 기질에 타재되어 있는 氣質之性에 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은 각기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기질을 순화하고 수양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

17) 임현규, 前揭書, pp.345-346.

요하다.

주자는 마음의 理는 바로 仁인데, 仁은 生하게 하면서 그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인간됨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음의 본성은 生理로서 仁이라 한다. 이 生理와 仁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인간의 본원은 우주에 있으므로 인간은 천지의 大德에 의해 生生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仁心은 천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고, 천지에도 仁心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仁이 人心의 終始가 된다고 한다. 인간에게 仁이 없다면 사회정의도 질서도 시비 분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은 仁心에 의해 도덕심이 발동하고 도덕적 사회질서가 성립한다고 한다.

IV. 無自欺의 意義와 實行

1. 大巡思想에서의 마음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다르다는 二元論을 취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心身同一說의 입장도 갖고 있다.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 安心·安身이라 하기도 하지만, 육체의 활동은 마음의 작용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정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⁸⁾

첫째,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을 갖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인간의 욕구는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다. 생물체의 식욕과 종족보존의 욕구 등은 본능적인 것인데,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고서도 인간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물적 본능과 인간적 욕구를 총칭한다. 인간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에서 원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능력과 분수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욕구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인간의 원한은 천지 기운을 막게 할

18) 拙稿, "大巡思想의 信條 : 安心·安身", 大巡思想論叢, 제7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參照.

정도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의 운행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둘째,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인간 행동은 마음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천지지중양심야 고동서남북신의어심(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¹⁹⁾ 이라 하여, 천지의 중앙에 마음이 있으며, 몸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²⁰⁾ 하고, 마음이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므로,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마음은 인간을 움직이는 주체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셋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기(氣)로 보기도 한다.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기(正氣)가 없어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된다고 한다.²¹⁾ 인간이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는 데에서, 인간의 바른 마음이 없어지고 사사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邪氣는 허망한 정신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을 氣로 보는 것은 유가의 성즉리(性卽理)와 氣質之性和 같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正氣와 邪氣는 良心과 邪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도덕적 의식이다. 양심은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박애심과 자기 사랑과의 조화를 갖게 하는 도덕적 기능을 한다.²²⁾ 양심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으로 본 마음이며, 사심은 物慾에 의하여 나타나는 욕심이라 할 수 있다. 유가의 표현을 따르면 양심은 本然之性이고 사심은 氣質之性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분석심리학에서 양심은 특수한 知, 또는 의식이라 한다.²³⁾ 양심은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 행동의 동기에 관한 감정적 가치를 아는 것으로서, 주관적 가치판단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지적 확인이기도 하다. 양심은 복잡한 현상이라서 무슨 일이 있기 전이나 일을 하면서, 또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의식된 반성일수도 있고 도덕적인 의미가 없는 막연

19) 典經, 교운 제1장 66절, p.183.

20) 대순지침, p. 48.

21) 대순지침, p.40.

22)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教文社, 1987), p. 197.

23) 李符永, 前揭書, p.309.

한 불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양심은 사회적 도덕 규범에 선행하며, 도덕 규범을 초월하는 것으로도 본다. 양심은 전통적인 도덕 규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을보다도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양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성의 본질인데, 물욕으로 인한 사심에 의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天性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²⁴⁾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안심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안심은 “사람의 행동의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偏僻)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²⁵⁾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인간의 건강은 마음이 평안한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心身安泰)²⁶⁾ 하여, 육체적 건강은 정신적 안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²⁷⁾ 하고, 그리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諸病從心起)고 한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한 데에서 병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병을 치유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에 있다고 한다. “대병지약(大病之藥)은 안심·안신”이라 하여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한편 신체적 질환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身病可藥 心病難醫)²⁸⁾ 한다. 아무리 큰 병이라 하더라도 안심·안신을 이루면 고칠 수 있지만, 안심·안신이 안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으며, 마음에 병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다섯째, 어질고 착한 마음이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원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仁善의 自誠이 道誠의 定石이므로 誠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²⁹⁾고 하여 誠한 마음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仁善

24) 大巡眞理會 要覽(서울 : 大巡眞理會 教務部, 1969), pp. 18-19.

25) 上揭書, p. 15.

26) 大순지침, p. 49.

27) 大순지침, p. 49.

28) 大순지침, p. 49.

을 스스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道를 성실하게 닦는 기본이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유가에서도 강조한다. 공자는 인도(仁道)를 중시하는데, 仁은 천도(天道)라 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天思想은 인간에게 禍福을 좌우하는 공포의 천이었으나, 공자는 天이 인간에게 명하는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여 天概念을 정립하였다.³⁰⁾ 공자가 말하는 天은 모든 원리의 원리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주 만물에 命하지만,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공자는 仁을 天道라 하면서, 天思想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仁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天性和 物性에도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仁은 인간에게는 물론 만물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仁義禮智信도 근본은 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庸에서 ‘仁者人也’³¹⁾라 하였고, 공자도 殷有三仁爲라하여 人과 仁을 동일시하고 있다. 논어에 爲人由己, 我欲仁 斯仁至³²⁾, 그리고 맹자가 ‘仁也者人也’라 하여 仁과 人을 합하면 道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주장은 仁性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며, 인간이 인행(仁行)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가의 仁은 도의 근본이며, 인간이 금수와 구별할 수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다. 맹자도 인간다움으로 측은(惻隱), 사양(辭讓), 수오(羞惡), 시비(是非)의 사단(四端)과 仁義禮智의 4덕을 강조하고 있다.³⁴⁾ 仁을 실행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인을 실행해야만 참다운 인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마음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교류하는 통로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한다. 이러한 개념은 신과 인간이 협력적인 상생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陰陽合德과 神人調化와 관련된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음과 양이 각각 갖고 있는 덕(德)을 상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음양합덕의 개념을 신과 인간의

29) 대순지침, p. 51.

30)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p. 107

31) 中庸, 20章

32) 論語, 述而 7-30

33) 孟子, 盡心下 16

34)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p. 355

관계에 적용하여 정립한 사상인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³⁵⁾하여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상합하고 협력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신의 뜻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전달되고,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신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일곱째, 마음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근본이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一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한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한다. 인간이 성공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 마음을 갖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³⁶⁾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진실로 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³⁷⁾ 하여 일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진실한 한 마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끝으로, 마음은 道心(신앙심)의 기초가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심을 도심이라 하는데, 마음이 도심을 이루는 핵심이라 한다. 신앙심은 어떠한 종교에 관한 믿음으로서, 하나의 신념체계를 구성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내재해 있는데, 이를 종교적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의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층이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³⁸⁾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일 수 있고 종교적 태도가 인간 본성의 속성이므로, 이를 상실하거나 종교적 원천에서 자아의식이 멀어질 때, 그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거나 종교성을 회복하는 데까지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때로는 종교성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된다고 한다.

35) 典經, 재생 43절, p. 309

36) 典經, 교법 제2장 5절, p. 234.

37) 典經, 교법 제2장 6절, p. 235.

38) 李符永, 前揭書, p.299.

도심은 대순사상에 관한 종교적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성숙한 종교적 감정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개념적 원리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응답한 체험을 통하여 구성된 마음가짐을 말한다.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와 특정한 가치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는 신앙심에 의해 생활을 하게 한다. 대순사상에서의 도심은 수도를 통해서 형성된다.

2. 無自欺의 意義와 實行

무자기는 대순사상의 중요한 교리이다. 모든 종교는 신비주의와 윤리성을 갖고 있는데, 교리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할 중요한 규범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그 사회의 법과 도덕, 규범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야 한다. 종교에서 윤리성은 교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엄격한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윤리성은 계율과 같은 것으로 일반 사회의 규범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다. 일반인들은 준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특정 종교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계율이 되고 있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계율은 일반인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순사상도 하나의 종교사상으로서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無自欺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無自欺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참마음(本眞)을 갖는 것이다. 인간이 참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本性으로 맹자의 四端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無自欺의 의의와 실행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無自欺는 인간이 양심에 따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참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참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無自欺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운데에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無自欺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해야만 한다. 옳은 일도

실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으므로, 실행하겠다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³⁹⁾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나의 마음을 참되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⁴⁰⁾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도 마음을 바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뜻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참되어야 참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無自欺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근원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견지해야 복을 받는다(眞心堅守福先來)⁴¹⁾고 하고,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⁴²⁾고도 한다. 대순사상은 길흉화복은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말고 조심하라”⁴³⁾, 하여 인간이 마음을 정화하여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신명들이 도와주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신명이 먼저 알고 단죄할 것이라 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⁴⁴⁾ 한다.

셋째, 無自欺는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

39) 대순지침, p. 52.

40) 대순지침, p. 70.

41) 典經, 교법 제2장 3절, p. 234.

42) 典經, 교법 제1장 21절, p. 225.

43)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 227

44) 전경, 교법 제1장 29절, p. 226

지하여도 되나니”⁴⁵⁾라 하여,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인간이 참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대순사상의 해원상생(解冤相生)과 관련된 개념이다. 해원상생은 인간은 물론 신명계와 우주 만물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고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사상이다.⁴⁶⁾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은 욕구 좌절, 인간과 우주만물의 상극 투쟁에 의해 생긴다고 하는데, 원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욕구뿐만, 시기와 질투 등으로 불안해진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을 풀어주고 남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이타주의적 상생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자기를 실현하려면 해원상생의 실천이 중요하다.

넷째, 無自欺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실천윤리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바른 마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⁴⁷⁾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신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립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신명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립능력과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인격이 완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신명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으며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無自欺는 언덕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내 몸에 이르나니라”⁴⁸⁾ 한다. 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남에게 말을 잘해야 덕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⁴⁹⁾라고도 한다. 말

45) 典經, 敎法 제1장 제2절, p.221.

46)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p. 180.

47) 典經, 敎法 제1장 제25절, p.225.

48) 典經, 敎法 제1장 제11절, p.223.

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기분을 언짢게 하기도 하며, 병이 들었어도 고칠 수 있으며, 죄를 사해 주기도 하는 등 중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언덕은 無自欺를 실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한다.

여섯째, 無自欺를 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이라 한다. 확고한 신념체계를 갖고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대순사상에서는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⁴⁹⁾고 하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無自欺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대순사상에서는 확고한 믿음을 한마음, 또는 일심이라 한다. 일심은 종교적 신념체계와 유사한 의미라 할 수 있다. 無自欺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한 믿음인 일심을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일심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한다.⁵¹⁾

일곱째, 인간이 항상 참 마음을 갖고 無自欺를 실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를 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하는 것을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동하여 심신(心身)이 일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⁵²⁾고 하여, 먼저 마음을 바로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심신일치(心身一致)를 강조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라 한다. 수도는 인격을 도야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행하여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도를 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한다. 수도를 통해 도심을 쌓고, 인간이 참 마음인 양심을 회복하여 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욕망에 의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邪心이 발동하여

49) 典經, 教法 제2장 제1절, p.234.

50) 대순지침, p. 53.

51) 典經, 教法 제2장 제5절, p.234.

52) 대순지침, p. 45.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데에서 나타나는데, 죄에 대한 벌은 몸이 받게 된다고 한다.⁵³⁾ 수도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인격 수양과 항상 인륜을 행하게 하려는 신앙생활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무자기는 대순사상의 삼요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⁵⁴⁾ 대순사상의 삼요체는 誠·敬·信을 말한다. 삼요체에 대해서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은 거짓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며, 경은 바른 예절 생활을 하는 것이며, 신은 믿는 마음이라 한다.

먼저 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라 한다.⁵⁵⁾ 誠은 인간의 精神과 氣와 神이 통합된 것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체를 뜻한다. 誠은 인간의 정신과 氣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誠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심정(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⁵⁶⁾고 한다. 誠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와 마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誠은 仁善으로 스스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은 도를 실행하는 기본이며, 誠이 만물의 존재 원리라 한다.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도를 따르는 기본인데, 이러한 誠이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라 한다.

敬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라고 하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고 한다.⁵⁷⁾ 인간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먹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따

53) 대순지침, p. 49.

54) 대순사상의 삼요체에 관해서는 拙稿,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拙稿, “敬思想 研究”大巡思想論叢, 제10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拙稿,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大巡思想論叢, 제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參照.

55) 대순지침, p. 51.

56) 대순지침, p. 41.

57) 대순지침, p. 52.

라서 옳은 일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敬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敬은 항상 지성을 다 하여야 하며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한다. “敬은 예의법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이다.”라고도 하여 예의법절을 갖추는 것을 강조한다.⁵⁸⁾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敬은 옳은 마음을 가지며, 바른 행동으로 예의법절을 준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一心을 갖고 진실한 행동을 하는데 지성으로 해야 한다.

信에 관해서는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라고 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한다. 信은 확고한 신념체계로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하는 믿음이라 한다.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⁵⁹⁾고 하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非人間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⁶⁰⁾라고 하였다. 信은 자아대성(自我大成)을 하는 기본이라 한다.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을 위한 작업이 信인 것이다.”라 하여 信이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한다.

V. 精神開闢의 意義

1. 開闢의 概念

대순사상에서는 이전의 세계를 선천세계라 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상을 후천세계라 하는데, 현재는 새로운 세계인 후천세계로 전환하는 시기라 한다.⁶¹⁾ 대순사상은 선천세계는 서양의 물질문명의 발달과, 삼극원리가 세상을 지배하여 각종 재앙이 빈발하여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서양의 물질문명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천리(天理)를 무시하고 자연을

58) 대순지침, p. 52.

59) 대순지침, p. 53.

60) 대순지침, p. 53.

61)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 경세원, 1996), p.45.

정복하여 모든 죄악이 커져서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진단은 서구 학자들도 하고 있다. Georg Picht는 서양과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형이상학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론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논리는 독단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한다. 그리하여 서양문명은 인간과 자연, 문화를 파괴한다고 한다.⁶²⁾ 서양문명은 플라톤 이후 모든 것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또는 신체,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해서 대상화한 데에서 서양문명의 위기가 나타났다고⁶³⁾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성취하고 실현할 수 없게 하여 정신적 불안과 소외감으로 공허함을 가져 왔다. 과학화는 인간성을 박탈하고 감정을 주관이라 하여 배척하고, 애증(愛憎)의 감정을 상실케 하였고,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모든 인간을 고독에 빠지게 하였다. 특히 현대사회는 脫人間化, 非人間化를 초래하였고,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시켰고, 자존심을 저하시켰다. 즉 서양의 물질문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인간의 욕구에 따른 자연정복과 물질만을 숭상하여 각종 죄악이 만연되었고,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려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⁶⁴⁾

한편 모든 나라는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과 투쟁을 하여 서로 다른 정치, 종교,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내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투쟁과 화합을 되풀이하여 상호간에 원한이 쌓여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상도(常道)를 잃고 인간간에 경쟁이 심

62)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考巧(서울 : 鐘路書籍, 1983), p. 883.

63) 상계논문, p. 882.

64) 전경,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화되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갖가지 재화가 빈발하여 원한이 쌓여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모순이 존재하여 개인·집단·계급·민족·국가 간에는 대립과 갈등과 투쟁을 하게 되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집단과 계급과 국가는 원한이 맺히고 쌓인다고 한다. 이러한 원한은 세계를 멀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연계의 운행질서마저 파괴시켜 가뭄과 홍수 지진과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이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고 척을 지으면 원한이 생기는데, 원한이 쌓이면 개인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사회 전체가 서로 대립되고 갈등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한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⁶⁵⁾

대순사상에서는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세계를 상생의 새로운 세계인 후천세계를 건설하려는 작업이 개혁이다. 천지인(天地人) 삼계를 새로운 질서로 만드는 개혁을 위해 삼계공사가 필요하다. 삼계공사는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과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개혁작업을 말한다. 선천세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이상사회인 후천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 개혁이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인간사회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었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남녀차별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문화, 반상(反常)의 구별로 인한 차별이 보편화되었다. 우주와 세계를 구성하는 만물이 상극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 개인이 모두 대립하여 침략과 전쟁, 억압과 착취, 고문과 학살, 모략과 음모, 대립과 갈등 등으로 탄압에 대한 투쟁과 보복, 물리력에 의한 지배가 악순환하고 있다.

이러한 선천세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새로운 세계인 후천세계를 만

65) 전경, 공사 제1장 3절, p. 98

들고자 하는 것이 개혁이다. 대순사상의 개혁은 인간개혁과 천지개혁으로 나누어진다. 천지개혁은 하늘과 땅을 새로운 질서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개혁은 인간의 정신을 바꾸는 작업이다.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천지개혁이고, 인간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정신개혁이다. 개혁은 상극원리가 지배하는 선천세계의 천지를 변화시키는 천지개혁과, 인간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에 맞도록 인간의 정신이 달라지는 정신개혁이 있다.

천지와 인간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선천세계의 각종 재화와 쌓인 원한 등은 천지와 인간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지만 개혁되어서는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없고, 인간만이 달라져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후천세계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인 우주와 인간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개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혁의 목적은 고해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고 후천세계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⁶⁶⁾ 선천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을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개혁이다. 후천세계가 전개되면 모든 원한이 해소되고 더 이상의 원한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후천세계에서는 선천세계에서 피해를 입고 억눌린 자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회는 지상천국으로 병이나 죽음이 없는 영생의 이상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둘째, 개혁은 천지운행의 도수(천지도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지도수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뜻하는데, 천지도수에 따라 만물과 인간은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한다. 천지도수는 우주의 운행법칙으로 인간과 신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천지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세계는 천지도수가 잘못되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상극투쟁을 한다. 우주의 운행법칙인 천지도수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상극으로 인한 투쟁이 심화되어 원한이 쌓였다고 한다. 우주 운행의 질서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어야 후천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66) 典經, 예시 제17절, p.314.

셋째, 선천세계에서 개벽이 되면 후천세계의 지구의 운행의 축이 바뀐다. 개벽에 의해 23.5도인 지구의 자전축이 새롭게 바뀐다. 지구의 근본축의 변화는 지진과 화산의 폭발, 해일 등이 발생하여 지상의 모든 생물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대변혁과 혼란이 온다. 그리고 지축이 정립되면 지구의 공전궤도가 타원에서 정원(正圓)이 되어 1년 365일이 360일이 되고, 매월 30일이 되고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정역시대(正易時代)가 될 것이다. 지구 상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고, 홍수, 태풍, 화재와 같은 삼재(三災)가 없어지는 선경이 될 것이라 한다. 역음존양에서 정음정양으로 전환되어 무극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원시반본(原始返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주의 근본원리에 따라 근본으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 천지만물과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식물이 봄과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이 되어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는 것과 같이, 우주도 생명의 분열과 성장운동을 멈추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넷째,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된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에 의해 우주와 인간사회가 이루어졌지만, 후천세계는 상생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것이다.⁶⁷⁾ 삼계가 개벽되지 않는 것은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여 원한이 쌓여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참혹한 재화가 생긴데 원인이 있다.⁶⁸⁾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개벽은 우주와 자연질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시공간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만물의 존재 양식이 변하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였으나, 후천세계에서는 상생의 원리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다섯째, 개벽은 병겁의 심판으로 온다. 치료약이 거의 없는 괴병이 발생하여 인류가 진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 한다. 새로운 시대로

67) 典經, 예시 제6절, p.312.

68) 典經, 예시 제8절, p.312.

전환하는 데에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병겁의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 한다.

2. 精神開闢의 意義

정신개벽이란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無自欺를 실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세계에서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천세계에서는 無自欺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심을 따르지 않고 사욕에 의해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참마음을 갖고 無自欺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순사상에서는 無自欺를 행하는 인식의 전환은 정신개벽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참인간으로 완전히 개조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선천세계의 인간정신으로는 후천세계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천세계의 인간정신은 재리만 탐하고 상극투쟁을 하여 원한이 증폭되어 인간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하여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벽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개벽의 의의와 실행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신개벽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였을 때 도통에 이른다”⁶⁹⁾고 하였다. 정신개벽은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정신개벽은 인간이 최고 수준의 인격을 도야하고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하는 경

69) 대순지침, p. 38.

지에 이르는 것이다.

둘째, 정신개혁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도를 닦은 자는 죽어도 정혼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 신이 되지만, 도를 닦지 않은 자의 정혼은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⁷⁰⁾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생존시에도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순사상에서는 신선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상적 인간상인 신선관념(神仙觀念)과 같은 것이다. 신선이란 인간이 초월적인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⁷¹⁾ 신선은 선인(仙人)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서 자연주의적 초월적 인간관에서 유추된 존재이다. 즉 신선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서도 자연을 초월한 생활을 하는 인간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신선관념(神仙觀念)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정신개혁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신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신과 교류하려면 신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하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死後)에 신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신과 같이 존중받고 죽어서 신이 되려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성을 고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교류한다는 것은 대순사상의 신인조화

70)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 237

71)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p. 146

에 근거한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있고 신의 뜻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한편 신인조화는 사람이 신의 뜻을 존중하여야 만이 인류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세상의 완성은 인간의 성숙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뜻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신의 뜻인 신도를 따르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의지인 신도를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서 형성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신개벽을 하여,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진리에 합치하는 인격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신개벽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 말고 조심하라”⁷²⁾, 하여 항상 근신할 것을 강조한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신명들이 도와주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아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신명이 이를 알고 바르게 잡아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덕을 쌓지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다섯째, 정신개벽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인간이 타고난 천성으로 본 마음이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물욕에 의해 사심을 갖는 데에서 사회의 모든 죄악이 생긴다고 한다. 양심이 인간다운 도덕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도덕적 의식이다. 양심은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박애심과 자기 사랑과의 조화를 갖게 하는 도덕적 기능을 한다.⁷³⁾

여섯째, 정신개벽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안심·안신에 의해 실

72)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 227

73) 金樹澈, 전계서, p. 197.

현될 수 있다. 인간이 양심을 갖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안심·안신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요소라 하겠다. 안심·안신은 대순사상의 종지인 陰陽合德이 완성되어야 한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각기 고유한 덕을 결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⁷⁴⁾ 음양합덕을 안심·안신에 적용해 보면, 인간의 마음은 陰이고 육체는 陽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음과 몸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안심·안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곱째, 정신개벽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언덕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한은 말을 잘못하는 데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언덕을 잘 가지라고 한다. 남에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원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미쳐 양자가 모두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그가 잘 되고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⁷⁵⁾ “말은 마음의 소리요 德은 道心の 자취라.”라 하여 바른 마음을 가져야 언덕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른 행동을 하지만, 그릇된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덟째, 정신개벽은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하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척을 풀어야 한다. 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억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척이 없어야 잘 살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척을 짓지 않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척을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⁷⁶⁾ 사심에 의해 척을 짓게 되면 보복을 당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척

74)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p. 263.

75) 典經, 교법, 제1장 11절, p. 223.

76)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 242.

을 짓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정신개혁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을 실천해야 한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입은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는 것은 인간사회를 안정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독립적인 개체이면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많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의 해결과 인간적인 욕구의 충족은 자연과 사회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보은을 하여야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생활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VI. 結 論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과 대순사상의 목적 중 무자기와 정신개혁을 고찰하였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로서 무자기와 정신개혁은 첫 번째 목적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진단은 대순사상과 같은 종교적 계시가 아닌, 과학자들에게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종교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 한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무한함과 정교한 질서에 더욱 경외감을 갖게 되고, 초자연적인 힘과 존재에 대한 탐구심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라 한다.⁷⁷⁾ 현대 과학이 유전인자의 구조와 우주의 신비를 밝혀 내는 등 인간과 자연과 우주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확대와 확산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약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 한다.

대순사상은 역사발전을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천세계는 현재의 세계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우주만물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이

77)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p. 256.

상세계를 말한다. 선천세계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원리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갖가지 재화(災禍)가 많아져 참혹한 세상이 되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선천세계가 참혹하게 된 것은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극원리는 음양이 각기 다른 존재를 부정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에 의한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원한이 가득 차서 세상이 참혹해졌고, 우주 만물이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있다.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만물은 약육강식으로 원한이 쌓여 있으며, 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인류의 생존 위기를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天理를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하였고 신도를 무시한 데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간사회가 원한이 쌓이고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인간적 욕망을 갖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이고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쟁 상태에 있어 모두가 충족시킬 수 없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경쟁하는 과정에서 인간사회는 불안해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한을 갖게 된다.

한편 인간의 과욕과 허욕도 원한을 쌓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과도한 욕구나 허욕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죄악을 짓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여,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인류와 만물은 생존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선천세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현재를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전환하는 시기라 한다.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개혁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개혁이란 후천세계를 여는 과정을 말한다. 후천세계를 열기 위한 작업인 개혁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는 제1차 작업은 정신개혁이다.

정신개혁은 인간이 무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무자기는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본성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양심과 邪心으로 나누는데, 사심은 그릇된 마음을 뜻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심에 의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상극투쟁을 하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성과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인간은 감성과 육체의 동물 영역에서 생기는 생물적 동작과 사건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만이 가진 고유의 이성능력과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행동해야만 한다.⁷⁸⁾ 이러한 이성에 기초한 행동은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이는 대순사상의 제1 목적인 무자기와 정신개벽을 실행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無自欺를 실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인간사회를 안정시키며, 후천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邪心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 손해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리하여 선천세계에서는 양심을 따르는 無自欺를 실행하지 않고 사욕에 의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선천세계의 인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마음을 갖고 無自欺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자기를 행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가 바로 정신개벽이다.

정신개벽은 선천세계의 상극과 투쟁의 인간정신을 상생의 정신으로 바꾸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 인간은 재리만 탐하고 상극투쟁을 하여 원한이 증폭되어 인간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하여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세계인 후천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인간으로서 실천해야할 기본적인 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최고 수준의 인격을 도야하고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78) 金樹澈, 前掲書, p. 22

정신개벽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지상신선이라고도 하고 도통이라 하기도 한다.

정신개벽이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도움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양심이 아닌 邪心으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을 회복하여 참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개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최고의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은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이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선천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후천세계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신개벽을 통해 무자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개벽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안심·안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마음의 평안과 건전한 육체를 갖는 안심·안신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 나아가 정신개벽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언덕을 실행하고,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않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먼저 척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무자기를 실행하고자 하는 정신개벽은 대순사상의 교리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다.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은 대순사상의 교리로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는 양심을 버리고 개인의 지나친 욕망에 의해 행동을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자기를 실행한다면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무자기를 실행하는 정신개혁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개조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하고, 나아가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적인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천성인 양심을 회복하여 참다운 행동을 하는 정신의 대변화인 정신개혁이 이루어져야 인간이 개조되는 지상선언이 될 수 있고, 이상세계인 지상천국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大巡眞理會出判部, 1984).
- 典經.
- 論語
- 孟子
- 中庸
-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 경세원, 1996).
-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巧(서울 : 鐘路書籍, 1983)
-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 蒙培元, 지음, 李尙鮮 옮김, 中國 心性論(서울 : 법인문화사, 1996).
-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 朴昇植,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條 : 安心·安身”, 大巡思想論叢, 제7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敬思想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0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大巡思想論叢, 제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人間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

- 社, 1989).
- 吳錫泓, 組織理論(서울 : 博英社, 1983).
-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 柳仁熙, “程·朱의 人性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性論과 人性論(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考巧(서울 : 鐘路書籍, 1983).
-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 임헌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1).
-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 E From, *The Sane Society*(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55), 金炳翼譯, 건전한 사회(서울 : 汎文社, 1984).
-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 : 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 청아출판사, 1991).